

당의 인민사랑의 정치를 쓸로써 밟들 열의로 들끓는 협동벌 예견성 있게 기동적으로 짜고든 작전

울해의 불리한 농사조건은 한해 농사결속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그러나 정주시 일군들은 10월의 대축전을 끝길에 경축한 궁지 높이 가을걷이와 날알털기기를 최단기간에 끝내기 위한 투쟁에서 련일 높은 실적을 올리고 있다.

그 비결이 있다.

위대한 평도자 김정일 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였다.

『모든 일군들은 봄사에서 구체적인 방법론을 가지고 일하는 것은 하나의 원칙으로 삼아야 한다.』

가을걷이와 날알털기 조건은 폐년에 없이 불리하였다. 지난 시기에는 생각 못하였던 탈곡기들과 땅포드들의 가동에서 적지 않은 애로가 나섰다. 그런데다가 벼生死이 늦어진 조건에서 가을걷이와 날알털기기를 적기로 절차로 끝내야 하였다.

이것은 한해 농사결속에 영향을 줄수 있는 문제가 아닐수 없었다.

물론 가을걷이를 앞두고 그 어떤 조건에서도 날알털기를 진행 할수 있게 탈곡기들을 조작하였으며 적은 기름으로 벼단을 운반하기 위한 대책을 세워놓았다. 하지만 이것만으로 높이 세운 목표를 제기기에 수행할 수 없었다.

있을수 있는 정황을 예견하여 작전하지 못하면 한해 농사결속

에 지장을 받아 애란 결실을 맛을 수 없게 된다.

특히 가을날씨는 풋처럼 예측하기 어렵다. 비가 내리거나 바람이 세게 부는 날도 있을 수 있다.

만일 이런 경우를 타산하지 않다면 가을걷이 전투를 제기

일에 끌낼수 없는 것은 물론 날

알털기도 막을 수 없다.

조선로동당창건 70돐경축 열병식 및 평양시군중시위

에서 하신 경애하는 원수님의

연설을 격동속에 받아온은 일

군들은 당의 인민사랑의 정치

를 쓸로써 밟들로 대 중의

양양된 열의와 기세에 맞게

가을걷이 작전을 더욱 짜고들

었다.

운반도구를 적극 활용하게 한

사실을 놓고보자.

실적이 높은 침향협동농장

에 내려갔던 일군들은 어느 한

작업반에서 걸음을 멈추었다.

작업반원들이 만들어놓은 운

반도구를 끌고 벼단을 깨끗이

풀었다. 그들은 오늘과

같이 날씨가 좋은 날에는 별일

없겠지만 비가 내릴 때의 운반

대책을 세워야 한일의 날알도

허설하지 않을 수 있다고 하면

서 지난 시기의 경험을 끌어올

렸다. 이 작업반에서는 비가

내려 땅이 젖어지는 날이면 땅

포드를 놓고 놓는 문제를

풀기 위해 계별적으로 쓸 수 있

정주시 일군들의 사업에서

는 운반도구를 만들어 리용하여 벼단을 운반하였다. 이렇게 한 결과 날알터도 막을 수 있게 되었다.

특히 가을날씨는 풋처럼 예측하기 어렵다. 비가 내리거나 바람이 세게 부는 날도 있을 수 있다.

만일 이런 경우를 타산하지 않다면 가을걷이 전투를 제기

일에 끌낼수 없는 것은 물론 날

알털기도 막을 수 있다.

조선로동당창건 70돐경축 열병식 및 평양시군중시위

제에 대하여 다시 한번 따져보았다.

그 과정에 비가 내릴것이 예상된다면 벼단을 깨끗이 풀어놓는 경우에 쌀과 벼단을 함께 운반을 할 때 비가 내려 땅이 젖어지면 달구지수를 끌고 운반도구를 놓아놓는 경우에 끌내기로 되어야 한다.

파연 어떻게 되어 날알털기 능률이 높아졌는가. 한걸음 더 깊이 들어가 헤어해보니 농장

일군들이 우리 당의 인민사랑의 정치를 쌀로써 벼단을 각오로 하였다. 그리고 작업반들에서

달구지수로 현대를 조작하고 매

일 분초별 일정계획을 짜고보며 운반량이 많은 분조에 접수수송을 조직하기 위한 대책도 세웠다.

이렇게 짜고든 작전은 온이

나기 시작하였다.

모든 탈곡장들에서 날알털기를 동시에 끌낼수 있게 작전한 것도 좋았다.

높이 세운 전투목표를 수행하

자면 시인의 모든 탈곡장들에서

날알털기를 동시에 끌어야 하였

다. 일군들은 날알털기를 제기

일에 끌내야 한다. 본사기자 정성일

능력이 각각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리하여 그 능력에 맞게 소형 탈곡기 대수를 정하고 배치하도록 하였다. 결국 모든 탈곡장들에서 날알털기를 동시에 끌낼수 있는 담보가 마련되었다.

혹록협동농장의 날알털기 설적이 계속 오른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일군들은 이 사실을 스쳐지나지 않았다. 이 농장이라고 뮤탈리 조건이 유리한 것은 아니었다. 그렇다면 비결은 무엇인가.

일군들은 농장에 내려가 어려

사람들을 만나보았다. 그들은

하나같이 날알털기 능률이 높이

나 모두가 성과가 나서 더 많

은 일을 해제겠다고 자랑하

였다.

여러가지 이유로 뮤탈리 조건이 좋았던 것이다.

이 문제를 중시한 일군들은

이번 품종의 논벼는 포전에서

털길을 털고 작전하였다. 즉 가을걸이가 진전되는 포전들에 힘입어

탈곡장을 전개해놓고 이동식 탈곡기를 활용하도록 하였다. 여기에 놓치지 않은 것은 이동식 탈곡기를 고장나면 제때에 수리 할수 있게 예비부속품준비도 미리 해놓도록 한 것이다.

결과 짧은 기간에 벼가을은

몬군 날알털기를 끌낼수 있는 전망을 열어놓았다.

쌀로써 우리 당의 인민중시, 인민사랑의 정치를 발휘하기 위해 협동을 넓힐수 있는 조건이 조성되었다.

일군들은 이 경험을 적극

일반화하기 위한 사업을 네밀

었다.

일군들이 포전에 나가 정치

사업을 앞두면서 벼작황상태

와 탈곡기들의 능력을 파악

하였다. 그 과정에 매 탈곡기들의

날알털기를 제기하고

나는 이곳 일군들의 일본새는 본

밭을만 하다. 본사기자 정성일

안변군 학천 협동농장에서

위대한 평도자 김정일 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당이 제시한 알곡생산목표를 실현하기 위하여 하여서는 우리 당의 농업방침을 절대성, 무조건성의 원칙에서 웅호관철합니다.』

당정 핵판철에서는

오직 무조건성의 원칙

만을 알아야 한다.

안변군 협동농장 일군들은 벼가을걸이와 날알털기를 작전하고

결국 하루에 끌내기로

나울것이 있다.

중요한 것은 우리 당의 인민

사랑의 정치를 잘로써 발을 각

오로 떠나는 것이다.

문제가 여기에 귀착되자 일군들은 정신이 번쩍 들었다. 우리

들은 정신이 번쩍 들었다. 우리

지금 우리 앞에는 수많은 글작
품들이 쌓여있다.
당장 겨울을 맞으며 각지
의 독자들이 본사편집국 앞으로
보내온 작품들이다.

생활은 노래이며 시라는 말이
있다. 로동이 노래이고 기쁨은
우리 사회에는 보람넘친 생활을
시와 노래에 담는 사람들이 많다.
그러나 오후백파 푸르트는
이 계절에 대풍작이라는 말이
절로 흘러 나오게 하는 수많은
시와 노래들은 결코 폐사로운
나날에 울린 생활의 메아리들이
아니다.

당을 따르는 우리 인민의 마음,
어머니당을 우러러 끌없이
터치는 인민의 다함없는 흠모와
격정이 당창건 일흔장을 맞는^{10월}
10월에 세상에 다시 없을 노래의
꽃다발, 시의 꽃비단을 펼칠
것이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일심단결은 장군님께서 봉
려하신 가장 귀중한 혁명유산
이며 우리 혁명의 천지재대본
입니다. 수령, 당, 대중이 위대한
사상과 뜨거운 사랑과 정으로
굳게 뭉쳐진 우리의 일심단결은
억만금에도 끝길수 없는 가장 큰
재물입니다.』

당이란 무엇인가.
우리 인민에게는 이 말이 정
치술에는 아니다. 이 땅에서는
미리원로학자로부터 나아린 소
년단원에 이르기까지 한목소리
로 말한다.

우리에게 있어서 당은 곧
위대한 수령들이 있고 경애하는
원수님이시다.
『사람들의 가슴 부풀게 하는 수
도 평양의 아침은 상쾌하다. 사람
마다 희열과 기백이 넘치고 온 오
물을 누려가고 있는 것이 바로 오

조선로동당은 언제나 인민의 마음속에 있다

가지에서 보내여온 글작품들을 보며

그대는 내곁에 있어라
위대한 조선로동당이여

이런 시는 어느 인민이나 쓸
수 있는 것이 결코 아니다.

못난 자식, 말썽 많은 자식이라
고 하여도 버리지 않고 오히려
걱정하고 마음을 쓰는 어머
니의 불같은 사랑으로 온 나라

인민의 운명을 따뜻이 품어안아
보살펴주는 고마운 조선로동당,

깊은 서정의 세계에 잠겨들게
하는 시의 구절을 읽어가느라니
만사람의 심금을 털어잡았던 감동
깊은 화폭들이 눈앞에 어려운 것이다.

성천군에서 살고 있는 주영립
동무의 서정시는 바로 그런 진
실한 사상감정의 특별한 것으로
하여 읽을수록 여운이 크다.

평양시에서 살고 있는 한홍성동
무가 보내온 수필의 한 부분이다.
그는 위대한 수령님들 그대로
이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계시
여래일을 향해 더 힘차게 나래
펴는 우리 조국, 우리 인민의 휘

황한 미래를 넘쳐 노래하였다.
인민의 눈앞에는 이 땅의 수

많은 축복받은 인생들의 모습이
주마등같이 흘러간다.

하반신미비로 오래동안 침상
에 있던 영예군인이 이를난 시
인으로 한생을 빛내이고 수십년
간 차디찬 육중에서 숨쉬는 화
석으로 고통받던 비천한 장기수

우리에게 있어서 당은 곧
위대한 수령들이 있고 경애하는
원수님이시다.
『사람들의 가슴 부풀게 하는 수
도 평양의 아침은 상쾌하다. 사람
마다 희열과 기백이 넘치고 온 오

물을 누려가고 있는 것이 바로 오

우리 시대의 가슴벅찬 현실
이다. 그 희망의 날개를 활짝 펴
고 우리의 과학자, 기술자, 로동
자들은 신문조선의 위용을 만방
에 펼치며 인구지수성을 쏴울리
는 경이적인 현실을 펼쳤고 우리
의 미미운 체육인들은 탑운색
공화국기를 창공높이 휘날리고
있었다.

후론 품 키워준 그 손길 없다면
내 마음 날개없는 새와 같으려
... 날개, 희망의 날개!

그 날개는 위대한 품, 위대한
사랑의 손길이 있어야 생기는 것
이다. 우리 그 날개는 오직 우리
의 운명이시고 삶의 전부이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만 주실
수 있는 것이다.

위대한 수령, 위대한 당의 품
을 떠난 우리의 행복, 우리의 희
망, 우리의 운명을 어찌 생각할
수 있으랴. ...

평양시에서 살고 있는 한홍성동
무가 보내온 수필의 한 부분이다.
그는 위대한 수령님들 그대로
이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계시
여래일을 향해 더 힘차게 나래
펴는 우리 조국, 우리 인민의 휘

황한 미래를 넘쳐 노래하였다.
인민의 눈앞에는 이 땅의 수

많은 축복받은 인생들의 모습이
주마등같이 흘러간다.

하반신미비로 오래동안 침상
에 있던 영예군인이 이를난 시
인으로 한생을 빛내이고 수십년
간 차디찬 육중에서 숨쉬는 화
석으로 고통받던 비천한 장기수

우리에게 있어서 당은 곧
위대한 수령들이 있고 경애하는
원수님이시다.
『사람들의 가슴 부풀게 하는 수
도 평양의 아침은 상쾌하다. 사람
마다 희열과 기백이 넘치고 온 오

물을 누려가고 있는 것이 바로 오

우리 시대의 가슴벅찬 현실
이다. 그 희망의 날개를 활짝 펴
고 우리의 과학자, 기술자, 로동
자들은 신문조선의 위용을 만방
에 펼치며 인구지수성을 쏴울리
는 경이적인 현실을 펼쳤고 우리
의 미미운 체육인들은 탑운색
공화국기를 창공높이 휘날리고
있었다.

후론 품 키워준 그 손길 없다면
내 마음 날개없는 새와 같으려
... 날개, 희망의 날개!

그 날개는 위대한 품, 위대한
사랑의 손길이 있어야 생기는 것
이다. 우리 그 날개는 오직 우리
의 운명이시고 삶의 전부이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만 주실
수 있는 것이다.

위대한 수령, 위대한 당의 품
을 떠난 우리의 행복, 우리의 희
망, 우리의 운명을 어찌 생각할
수 있으랴. ...

평양시에서 살고 있는 한홍성동
무가 보내온 수필의 한 부분이다.
그는 위대한 수령님들 그대로
이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계시
여래일을 향해 더 힘차게 나래
펴는 우리 조국, 우리 인민의 휘

황한 미래를 넘쳐 노래하였다.
인민의 눈앞에는 이 땅의 수

많은 축복받은 인생들의 모습이
주마등같이 흘러간다.

하반신미비로 오래동안 침상
에 있던 영예군인이 이를난 시
인으로 한생을 빛내이고 수십년
간 차디찬 육중에서 숨쉬는 화
석으로 고통받던 비천한 장기수

우리에게 있어서 당은 곧
위대한 수령들이 있고 경애하는
원수님이시다.
『사람들의 가슴 부풀게 하는 수
도 평양의 아침은 상쾌하다. 사람
마다 희열과 기백이 넘치고 온 오

물을 누려가고 있는 것이 바로 오

우리 시대의 가슴벅찬 현실
이다. 그 희망의 날개를 활짝 펴
고 우리의 과학자, 기술자, 로동
자들은 신문조선의 위용을 만방
에 펼치며 인구지수성을 쏴울리
는 경이적인 현실을 펼쳤고 우리
의 미미운 체육인들은 탑운색
공화국기를 창공높이 휘날리고
있었다.

후론 품 키워준 그 손길 없다면
내 마음 날개없는 새와 같으려
... 날개, 희망의 날개!

그 날개는 위대한 품, 위대한
사랑의 손길이 있어야 생기는 것
이다. 우리 그 날개는 오직 우리
의 운명이시고 삶의 전부이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만 주실
수 있는 것이다.

위대한 수령, 위대한 당의 품
을 떠난 우리의 행복, 우리의 희
망, 우리의 운명을 어찌 생각할
수 있으랴. ...

평양시에서 살고 있는 한홍성동
무가 보내온 수필의 한 부분이다.
그는 위대한 수령님들 그대로
이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계시
여래일을 향해 더 힘차게 나래
펴는 우리 조국, 우리 인민의 휘

황한 미래를 넘쳐 노래하였다.
인민의 눈앞에는 이 땅의 수

많은 축복받은 인생들의 모습이
주마등같이 흘러간다.

하반신미비로 오래동안 침상
에 있던 영예군인이 이를난 시
인으로 한생을 빛내이고 수십년
간 차디찬 육중에서 숨쉬는 화
석으로 고통받던 비천한 장기수

우리에게 있어서 당은 곧
위대한 수령들이 있고 경애하는
원수님이시다.
『사람들의 가슴 부풀게 하는 수
도 평양의 아침은 상쾌하다. 사람
마다 희열과 기백이 넘치고 온 오

물을 누려가고 있는 것이 바로 오

우리 시대의 가슴벅찬 현실
이다. 그 희망의 날개를 활짝 펴
고 우리의 과학자, 기술자, 로동
자들은 신문조선의 위용을 만방
에 펼치며 인구지수성을 쏴울리
는 경이적인 현실을 펼쳤고 우리
의 미미운 체육인들은 탑운색
공화국기를 창공높이 휘날리고
있었다.

후론 품 키워준 그 손길 없다면
내 마음 날개없는 새와 같으려
... 날개, 희망의 날개!

그 날개는 위대한 품, 위대한
사랑의 손길이 있어야 생기는 것
이다. 우리 그 날개는 오직 우리
의 운명이시고 삶의 전부이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만 주실
수 있는 것이다.

위대한 수령, 위대한 당의 품
을 떠난 우리의 행복, 우리의 희
망, 우리의 운명을 어찌 생각할
수 있으랴. ...

평양시에서 살고 있는 한홍성동
무가 보내온 수필의 한 부분이다.
그는 위대한 수령님들 그대로
이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계시
여래일을 향해 더 힘차게 나래
펴는 우리 조국, 우리 인민의 휘

황한 미래를 넘쳐 노래하였다.
인민의 눈앞에는 이 땅의 수

많은 축복받은 인생들의 모습이
주마등같이 흘러간다.

하반신미비로 오래동안 침상
에 있던 영예군인이 이를난 시
인으로 한생을 빛내이고 수십년
간 차디찬 육중에서 숨쉬는 화
석으로 고통받던 비천한 장기수

우리에게 있어서 당은 곧
위대한 수령들이 있고 경애하는
원수님이시다.
『사람들의 가슴 부풀게 하는 수
도 평양의 아침은 상쾌하다. 사람
마다 희열과 기백이 넘치고 온 오

물을 누려가고 있는 것이 바로 오

우리 시대의 가슴벅찬 현실
이다. 그 희망의 날개를 활짝 펴
고 우리의 과학자, 기술자, 로동
자들은 신문조선의 위용을 만방
에 펼치며 인구지수성을 쏴울리
는 경이적인 현실을 펼쳤고 우리
의 미미운 체육인들은 탑운색
공화국기를 창공높이 휘날리고
있었다.

후론 품 키워준 그 손길 없다면
내 마음 날개없는 새와 같으려
... 날개, 희망의 날개!

그 날개는 위대한 품, 위대한
사랑의 손길이 있어야 생기는 것
이다. 우리 그 날개는 오직 우리
의 운명이시고 삶의 전부이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만 주실
수 있는 것이다.

위대한 수령, 위대한 당의 품
을 떠난 우리의 행복, 우리의 희
망, 우리의 운명을 어찌 생각할
수 있으랴. ...

평양시에서 살고 있는 한홍성동
무가 보내온 수필의 한 부분이다.
그는 위대한 수령님들 그대로
이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계시
여래일을 향해 더 힘차게 나래
펴는 우리 조국, 우리 인민의 휘

황한 미래를 넘쳐 노래하였다.
인민의 눈앞에는 이 땅의 수

많은 축복받은 인생들의 모습이
주마등같이 흘러간다.

하반신미비로 오래동안 침상
에 있던 영예군인이 이를난 시
인으로 한생을 빛내이고 수십년
간 차디찬 육중에서 숨쉬는 화
석으로 고통받던 비천한 장기수

우리에게 있어서 당은 곧
위대한 수령들이 있고 경애하는
원수님이시다.
『사람들의 가슴 부풀게 하는 수
도 평양의 아침은 상쾌하다. 사람
마다 희열과 기백이 넘치고 온 오

물을 누려가고 있는 것이 바로 오

우리 시대의 가슴벅찬 현실
이다. 그 희망의 날개를 활짝 펴
고 우리의 과학자, 기술자, 로동
자들은 신문조선의 위용을 만방
에 펼치며 인구지수성을 쏴울리
는 경이적인 현실을 펼쳤고 우리
의 미미운 체육인들은 탑운색
공화국기를 창공높이 휘날리고
있었다.

후론 품 키워준 그 손길 없다면
내 마음 날개없는 새와 같으려
... 날개, 희망의 날개!

그 날개는 위대한 품, 위대한
사랑의 손길이 있어야 생기는 것
이다. 우리 그 날개는 오직 우리
의 운명이시고 삶의 전부이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만 주실
수 있는 것이다.

위대한 수령, 위대한 당의 품
을 떠난 우리의 행복, 우리의 희
망, 우리의 운명을 어찌 생각할
수 있으랴. ...

평양시에서 살고 있는 한홍성동
무가 보내온 수필의 한 부분이다.
그는 위대한 수령님들 그대로
이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계시
여래일을 향해 더 힘차게 나래
펴는 우리 조국, 우리 인민의 휘

황한 미래를 넘쳐 노래하였다.
인민의 눈앞에는 이 땅의 수

많은 축복받은 인생들의 모습이
주마등같이 흘러간다.

하반신미비로 오래동안 침상
에 있던 영예군인이 이를난 시
인으로 한생을 빛내이고 수십년
간 차디찬 육중에서 숨쉬는 화
석으로 고통받던 비천한 장기수

우리에게 있어서 당은 곧
위대한 수령들이 있고 경애하는
원수님이시다.
『사람들의 가슴 부풀게 하는 수
도 평양의 아침은 상쾌하다. 사람
마다 희열과 기백이 넘치고 온 오

물을 누려가고 있는 것이 바로 오

우리 시대의 가슴벅찬 현실
이다. 그 희망의 날개를 활짝 펴
고 우리의 과학자, 기술자, 로동
자들은 신문조선의 위용을 만방
에 펼치며 인구지수성을 쏴울리
는 경이적인 현실을 펼쳤고 우리
의 미미운 체육인들은 탑운색
공화국기를 창공높이 휘날리고
있었다.

후론 품 키워준 그 손길 없다면
내 마음 날개없는 새와 같으려
... 날개, 희망의 날개!

그 날개는 위대한 품, 위대한
사랑의 손길이 있어야 생기는 것
이다. 우리 그 날개

민족만대의 번영을 담보하는 불패의 힘

위대한 승리와 영광의 70년 역사사를 수놓아온 조선로동당에 드리는 만세의 환호성이 세계를 경탄시키며 10월의 광공들이 울려펴졌다. 보무당당히 지속을 울려며 위대한 당을 우러려 승리자의 경애를 브린 무적의 열병대오의 우승한 함성은 선군의 기치들이 겨울에 존엄과 자주권을 영예롭게 수호하며 승리의 전통을 이어갈 세운 조선로동당의 애국애족의 혁사에 대한 전체 조선민족의 긍지와 자부심이 응축되었다.

경애하는 김정은同志께서는 조선로동당창건 70돐에 즈음하여 빛고하신 혁사적으로 작 «위대한 김일성, 김정일동지 달의 위업은 불멸불멸이다»에서 우리 당이 새기를 이어 계속된 제국주의 학제력을 대결점에서 선군의 위력으로 군사강국의 위력을 통해 예우하고 언제나 승리만을 이룩한데 대하여 궁지 높이 흥화하시였다.

자위적 군사로선과 병진로선으로 무적의 국방력을 더지여 멀강들의 각축전장으로 수난당한 조선반도의 지정학적 죽숙명론은 영원한 파기사로 만든 것은 조국과 민족앞에 쌓아온 배전백승의 조선로동당의 투출한 공적이였다.

경애하는 김정은同志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자위적 국방력은 선군조선의 존엄이고 자주권이며 승리의 담보이다.»

자위적 국방력은 선군조선의 존엄이고 자주권이다.

혁사의 분수령에서 우리는 조선민족의 어제와 오늘을 다시금 되새겨본다.

조선반도에는 힘이 악했던 때에 지난 날 멀강들의 각축전장으로 짖밟혀 우고 종단에는 민족이 일제의 밟밟밀에 식민지노예의 비참한 운명을 강요당한 수난의 혁사가 기록되어있다. 우리 민족이

자기의 말과 글, 성과 이름, 시간까지 빼앗기며 존엄을 유린당하고 당국의 치욕을 당해야 했던 것은 자기의 주권을 지킬 힘이 없었기 때문이다.

자위적 국방력을 가져야 나라와 민족의 존엄과 안녕을 지킬수 있다. 한 나라, 한 민족의 존엄과 자주권은 자위적 국방력과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 총대이자 자주권이며 민족의 생명이다.

그것이 없으면 노예로 살수밖에 없다는 것은 파거의 베어른 교훈인 동시에 힘에 의한 강원과 전횡이 판을 치는 오늘의 세계가 보여주는 진리이다.

오늘 우리 민족에게는 그 어떤 침략적 도전도 격파분해하고 자기의 존엄과 자주권을 지킬수 있는 힘이 있다. 우리의 자위적 국방력은 자상, 해상, 수중, 공중, 육상과 물간에 이르기까지 모든 영역에서 민족의 존엄과 자주권을 영예롭게 수호할수 있게 되어야겠다.

자위적 혁액제력과 고대로 정밀화, 지능화된 전략전술로 무기들, 우리식의 초정밀 타격수단들에 이어 온 세계를 축복해 놔드린 전략잠수함과 단도반수증발사기와의 완성으로 조선반도와 동북아시아지역의 혁량판계구도에서는 중대한 국적인 변화가 일어나고있다.

선군조선은 기획핵량강중심의 세계정치구도에 파벌구를 내고 혁보유국과 혁력까지 갖춘 당당한 혁보유국으로 멀강들의 전열에 자기의 자리를 만들었다.

조선반도에는 힘이 악했던 때에 지난 날 멀강들의 각축전장으로 짖밟혀 우고 종단에는 민족이 일제의 밟밟밀에 식민지노예의 비참한 운명을 강요당한 수난의 혁사가 기록되어있다.

경애하는 김정은同志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자위적 국방력은 선군조선의 존엄이고 자주권이며 승리의 담보이다.»

자위적 군사로선과 병진로선으로 무

존엄과 자주권에 도전하는 그 어떤 적 대세에도 그 어이에 있건 초정밀 타격으로 제압, 소멸할수 있는 위력한 방사포들과 전략포트들의 위용당당한 전군은 그대로 우리 민족이 지닌 존엄과 자주권의 높이이고 상징이다.

선군조선의 무정막강한 자위적 국방력으로 하여 오늘 우리 민족의 존엄과 공지, 한 민족의 존엄과 자주권은 자위적 국방력과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 총대이자 자주권이며 민족의 생명이다.

그것이 없으면 노예로 살수밖에 없다는 것은 파거의 베어른 교훈인 동시에 힘에 의한 강원과 전횡이 판을 치는 지금의 세계가 기초하고 있는 것이다.

우리 당은 제국주의 학제력을 대결점에서 선군의 위력, 군사강국의 위력으로 적들의 세속되는 침략적 기도를 걸음마다 짓부시고 언제나 승리하여왔다.

혁사에는 지난 세기 60년대와 70년대의 «페어블로»호 사건, FEC-1 2 1 대형간척비행기 사건, 판문점사건을 비롯하여 오늘까지 미제가 조선반도의 평화를 위협하며 수없이 휘둘리며 대형통제기와 우리 당이 추구하는 선군의 장점 앞에 어떻게 수수대 처럼 쳐어나갔고 그때마다 선군조선이 어떤 통쾌한 승리를 이룩하였는가가 토후히 기록되어있다.

오늘날 혁액제력에 기초한 자위적 국방력에 의해 우리의 최후승리는 더욱 확고히 담보되고있다.

지금 동북아시아지역에서 작용하는 것은 미국의 «억제력»이 아니라 조선의 억제력이며 밀승의 담보로 되고있다는 우리의 자위적 국방력으로 하여 조선반도에서 혁전쟁위험이 시시각각 줄어들고있다는 것이 군사군사관의 평이다.

지난 8월에 면왕풀까지 달은 교전직전에서 되찾은 평온은 결코 회답탁우에서 얻은것이 아니라 위대한 우리 당이 당시에 차운 자위적 혁액제력을 중후로 하는 것이라고 하면서 다음과 같이 주장하였다.

경계가 어려운 것은 당국의 책임이다. 정치권론난의 주범은 아무 일 없이 잘 리용되며 혁사교과서에 대한 편집장을 밟혔으나 그 내용이 황당한 퀘변과 독신직언사로 가득차 달문이 막힌 지경이라고 지적하였다.

집권자가 «혁사교육이 정교정

치분쟁이나 리념대립을 일으켜 국민들을 갈라놓게 해서는 안된다»고 허용으로써 미치 혁사교과서에서 국정화에 대한 사회 각계의 반발이 정교과 리념대립을

일으키는 잘못된 행동인듯이 외

과하였다. 사실은 또한 경계가 어려운

때에 분열을 일으키기보다는 혁

사교과서 «국정화»가 국민 통합의 계기로 될수 있게 해야 한다.

한국은 평생을 두고 유미를

짓이라고 하면서 다음과 같이 주장하였다.

경계가 어려운 것은 당국의 책

임이다. 정치권론난의 주범은

아무 일 없이 잘 리용되며 혁사

교과서에 대해 «제주사상교과서»

이라고 하면서 «종북좌편향» 딱

지를 붙이는데 피눈이 된 현 당

사교과서에 «국정화»에 대한 사회 각

계의 반발이 정교과 리념대립을

일으키는 잘못된 행동인듯이 외

과하였다.

경계가 어려운 것은 당국의 책

임이다. 정치권론난의 주범은

아무 일 없이 잘 리용되며 혁사

교과서에 대해 «제주사상교과서»

이라고 하면서 «종북좌편향» 딱

지를 붙이는데 피눈이 된 현 당

사교과서에 «국정화»에 대한 사회 각

계의 반발이 정교과 리념대립을

일으키는 잘못된 행동인듯이 외

과하였다.

경계가 어려운 것은 당국의 책

임이다. 정치권론난의 주범은

아무 일 없이 잘 리용되며 혁사

교과서에 대해 «제주사상교과서»

이라고 하면서 «종북좌편향» 딱

지를 붙이는데 피눈이 된 현 당

사교과서에 «국정화»에 대한 사회 각

계의 반발이 정교과 리념대립을

일으키는 잘못된 행동인듯이 외

과하였다.

경계가 어려운 것은 당국의 책

임이다. 정치권론난의 주범은

아무 일 없이 잘 리용되며 혁사

교과서에 대해 «제주사상교과서»

이라고 하면서 «종북좌편향» 딱

지를 붙이는데 피눈이 된 현 당

사교과서에 «국정화»에 대한 사회 각

계의 반발이 정교과 리념대립을

일으키는 잘못된 행동인듯이 외

과하였다.

경계가 어려운 것은 당국의 책

임이다. 정치권론난의 주범은

아무 일 없이 잘 리용되며 혁사

교과서에 대해 «제주사상교과서»

이라고 하면서 «종북좌편향» 딱

지를 붙이는데 피눈이 된 현 당

사교과서에 «국정화»에 대한 사회 각

계의 반발이 정교과 리념대립을

일으키는 잘못된 행동인듯이 외

과하였다.

경계가 어려운 것은 당국의 책

임이다. 정치권론난의 주범은

아무 일 없이 잘 리용되며 혁사

교과서에 대해 «제주사상교과서»

이라고 하면서 «종북좌편향» 딱

지를 붙이는데 피눈이 된 현 당

사교과서에 «국정화»에 대한 사회 각

계의 반발이 정교과 리념대립을

일으키는 잘못된 행동인듯이 외

과하였다.

경계가 어려운 것은 당국의 책

임이다. 정치권론난의 주범은

아무 일 없이 잘 리용되며 혁사

교과서에 대해 «제주사상교과서»

이라고 하면서 «종북좌편향» 딱

지를 붙이는데 피눈이 된 현 당

사교과서에 «국정화»에 대한 사회 각

계의 반발이 정교과 리념대립을

일으키는 잘못된 행동인듯이 외

과하였다.

경계가 어려운 것은 당국의 책

임이다. 정치권론난의 주범은

아무 일 없이 잘 리용되며 혁사

교과서에 대해 «제주사상교과서»

이라고 하면서 «종북좌편향» 딱

지를 붙이는데 피눈이 된 현 당

사교과서에 «국정화»에 대한 사회 각

계의 반발이 정교과 리념대립을

일으키는 잘못된 행동인듯이 외

과하였다.

경계가 어려운 것은 당국의 책

임이다. 정치권론난의 주범은

아무 일 없이 잘 리용되며 혁사

교과서에 대해 «제주사상교과서»

이라고 하면서 «종북좌편향» 딱

지를 붙이는데 피눈이 된 현 당

사교과서에 «국정화»에 대한 사회 각

계의 반발이 정교과 리념대립을

일으키는 잘못된 행동인듯이 외

과하였다.

경계가 어려운 것은 당국의 책

임이다. 정치권론난의 주범은

아무 일 없이 잘 리용되며 혁사

교과서에 대해 «제주사상교과서»

이라고 하면서 «종북좌편향» 딱

지를 붙이는데 피눈이 된 현 당